고자기장·레이저 연구소 구축 등 국비 지원 요청

기재부 전남도청서 예산협의회
광주, 송정역 역사 증축 등 6건
전남, 글로벌 백신 허브 등 건의
안재걸 2차관, 전남도 요청에
"재정분권 재원 보전 연장 검토"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획재정부 주관 예산협의회에서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 구축 등 연구개발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불리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며, 기재부는 "재원 보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전향된 입장도 내놓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차례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3일 대구·경북권에 이은 2번째다.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와 4개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안 차관에게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재정분권 추진 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1단계는 ▲지방소비세 10%p 인상(부가가치세 11%에서 21%로 인상) ▲국가보조사업(균특) 지방이양(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이 3조2000억원 증액됐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지만, 전남도는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3년에는 현 예산보다 국비 4000억원이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 건의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

광주시는 이날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중심 선상역사 증축 ▲인공지능 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광주의료원 건립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에 있어,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전남도가 건의한 재정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호남(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스마트 신도시…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교통 확충과 분양이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며 "기존 교통망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강남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현대차, '광주 위탁생산' 경형 SUV 온라인 판매

차명 '캐스퍼' 유력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양산하는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위탁 생산하는 1000cc급 경형 SUV 'AX1'(프로젝트명)의 고객직접판매(D2C)를 추진 중이다.

차명으로 '캐스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AX1은 현대차가 GGM에 위탁 생산을 맡긴 첫 차다.

앞서 2019년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은 2300억원을 투자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법인 GGM을 설립했다. AX1은 1000만원대 중반의 가격과 차별적인 디자인으로 2030세대 '엔트리카' 수요를 겨냥하는 모델로, 다음 달 양산 예정이다. 현대차는 "광주 위탁생산 차량(엔트리 SUV)의 D2C 판매를 추진 중이며,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는 AX1에 한정된 것으로,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차종에 대해서는 현재 온라인 판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클릭 투 바이'를 미국과 유럽, 인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판매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올해 3월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사전 예약을 온라인으로도 받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온라인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볼보와 벤츠는 2025년까지 각각 전체 판매의 80%와 25%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김부선·최성해까지 소환…민주 경선, 선넘은 네거티브전

이재명·이낙연 비방전 가열
양측 캠프 사진 폭로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도덕성 검증'을 내건 네거티브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 배우 김부선씨를 선거판에 끌여들였고,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난데없는 사진 폭로전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가 첫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상당히 센 징계인 150만원 벌금을 받아서 누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언급했다.

김부선씨는 전날 SNS에 "이재명이 이미 두 번이나 걸렸다고 했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것에 18조 건다"고 썼다.

이에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부선씨나 다른 후보들이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이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현근택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 전 총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이낙연 후보는 최 전 총장과 어떤 사이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캠프는 지난해 총선 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을 논평과 함께 언론에 공유했다. 친문 강성파 등 민주당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국 이슈를 꺼낸 것은 '이낙연=친문 대표'라는 등식이 허구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총장과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후보는 작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한 지인의 소개로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과 만남을 가졌고, 최 전 총장은 그 지인과 함께 모임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정 단장은 그러면서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묻겠다"며 이 지사가 촬영된 다른 사진을 꺼내 들어 되받아쳤다.

정 단장은 "이 지사와 사진을 찍은 이 사람은 모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다"며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